



# 보도자료



(주소) 11027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전화) 031-830-5600 (팩스) 031-830-5619

2024. 02. 08.	쪽수	사진	홈페이지 주소	자료문의
'한국의 구석기 유적' 이제 한눈에 찾아본다	2쪽	있음	<a href="https://jgpm.ggcf.kr/">https://jgpm.ggcf.kr/</a>	부서 : 전곡선사박물관 담당 : 김소영 전화 : 031-830-5615

## '한국의 구석기 유적' 이제 한눈에 찾아본다

- ▶ 전곡선사박물관 학술 연구 사업 '한국의 구석기 유적 목록화 DB사업' 성과 1차 공개
- ▶ 1964년 이래 발굴 조사된 한국의 구석기 유적 현황 한눈에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관장 이한용)은 학술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구석기 유적 목록화 DB사업'을 실시, 그 성과를 박물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석기 전문 박물관으로서 한국 구석기 연구에 공헌하고자 그동안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1차 성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연구자는 물론 누구나 한국의 구석기 유적의 현황에 대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구석기 유적을 전수조사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국내 구석기 연구자, 유적 조사 성격, 지역별 특징 등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박물관은 발굴 조사된 구석기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와 발간 연도를 구분하고 조사 지역, 조사 목적, 조사 기간과 면적 등을 기록하였다. 1차 목록은 문화재청 인트라넷 서비스에 등록된 유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발간된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트라넷에 누락된 유적은 박물관의 기존 아카이브, 국내 발굴 기관 및 도서관의 자료 및 관련 문헌 조사, 개인 연구자 탐문조사 및 자료 기증 등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여 이번 공개 목록을 완성하였다.

사업 결과 한국의 구석기 유적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구석기 유적 발굴은 1964년 공주 석장리 유적이 조사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전곡리 유적이 조사되면서 변화를 맞이한다. 전곡리 유적은 아슐리안 주먹도끼의 발견으로 국내외에 보고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학계와 일반에 구석기 유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전곡리 유적의 학술조사가 지속됨과 더불어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물지구 문화유적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국내 구석기 유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2023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사되어 보고된 구석기 유적은 총 490여개소이다. 구석기유적 조사는 1990년대 까지 약 70여개소였지만 2000년대 전국적인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구석기 유적 또한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0년대 150여개소, 2010년대 220여개소, 2020년대 60여개소의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국내에서 발간된 첫 구석기 유적 보고서는 청원 샘골 구석기

유적이다. 이 유적은 대청댐 수물지구 조사의 일환으로 문화재연구소와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하여 1978년 조사되고 1979년 발간되었다.

구석기 유적 조사의 성격은 학술조사와 구제발굴조사로 나뉜다. 구제발굴조사는 댐, 도로, 건축물 건설에 앞서 진행되는 발굴조사로 유적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구석기 유적은 전체 490여건 중 학술조사가 약 40건(00%)에 불과할 정도로 구제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0년대는 가장 많은 유적 조사와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학술조사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현 한국문화재단)의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이 진행, 개인에 의한 소규모 발굴이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박물관은 이번 1차 성과 공개를 시작으로 관련 국내 구석기 DB 연구와 더불어 향후 보고서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여 박물관의 학술 기능과 학술 자원의 사회적 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여 누락된 유적 정보나 추가할 유적의 층위, 유물의 수 등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어 박물관-연구자 간 양방향 보완, 공유가 기대된다. 또한 구축된 DB를 활용한 후속 사업으로 '한국의 구석기 유적 지도 총람'을 제작하여 국내외 연구자는 물론 구석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구석기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번에 공개될 '한국의 구석기 유적 목록'은 전곡선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엑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곡선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31-830-5615